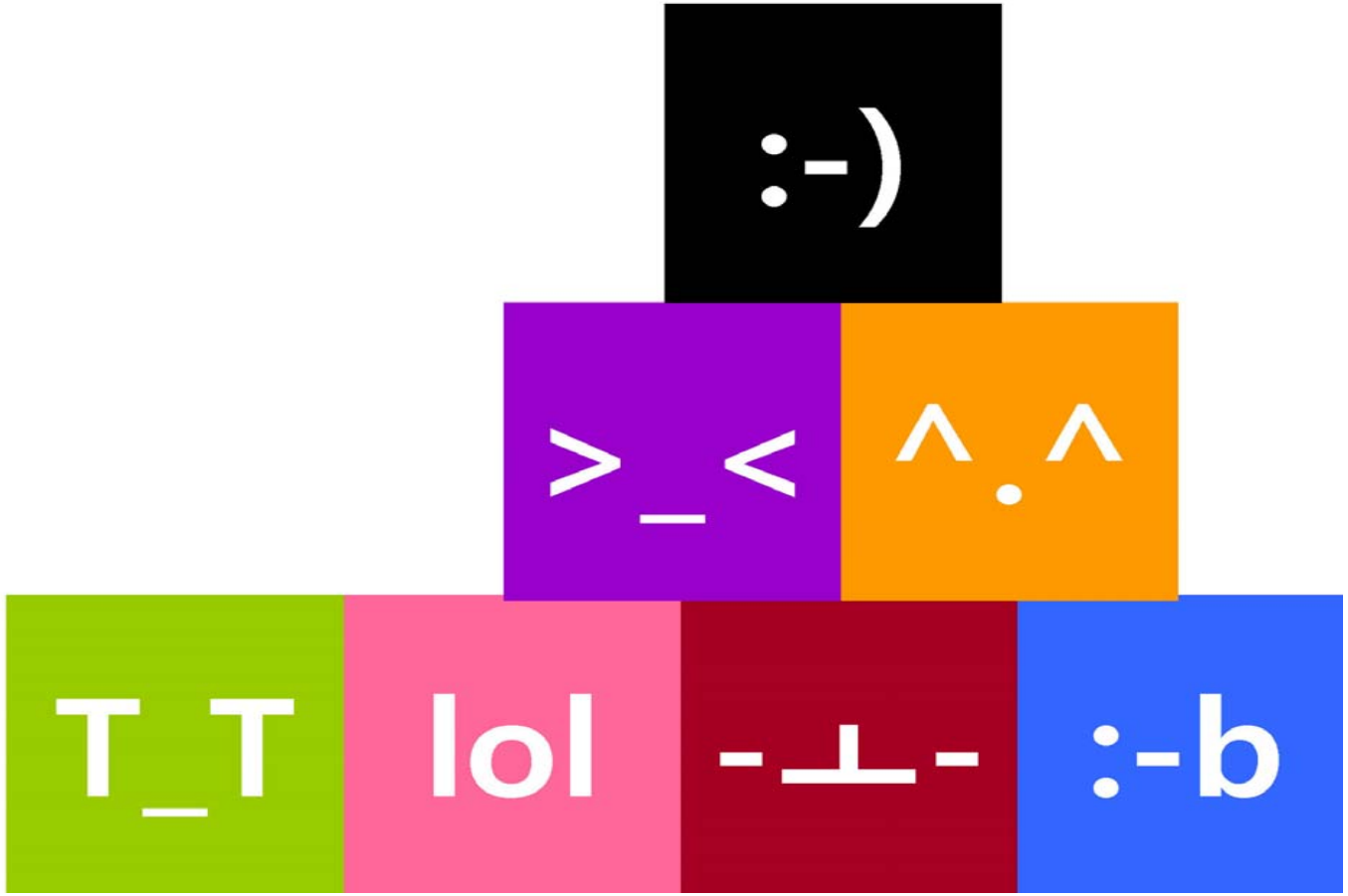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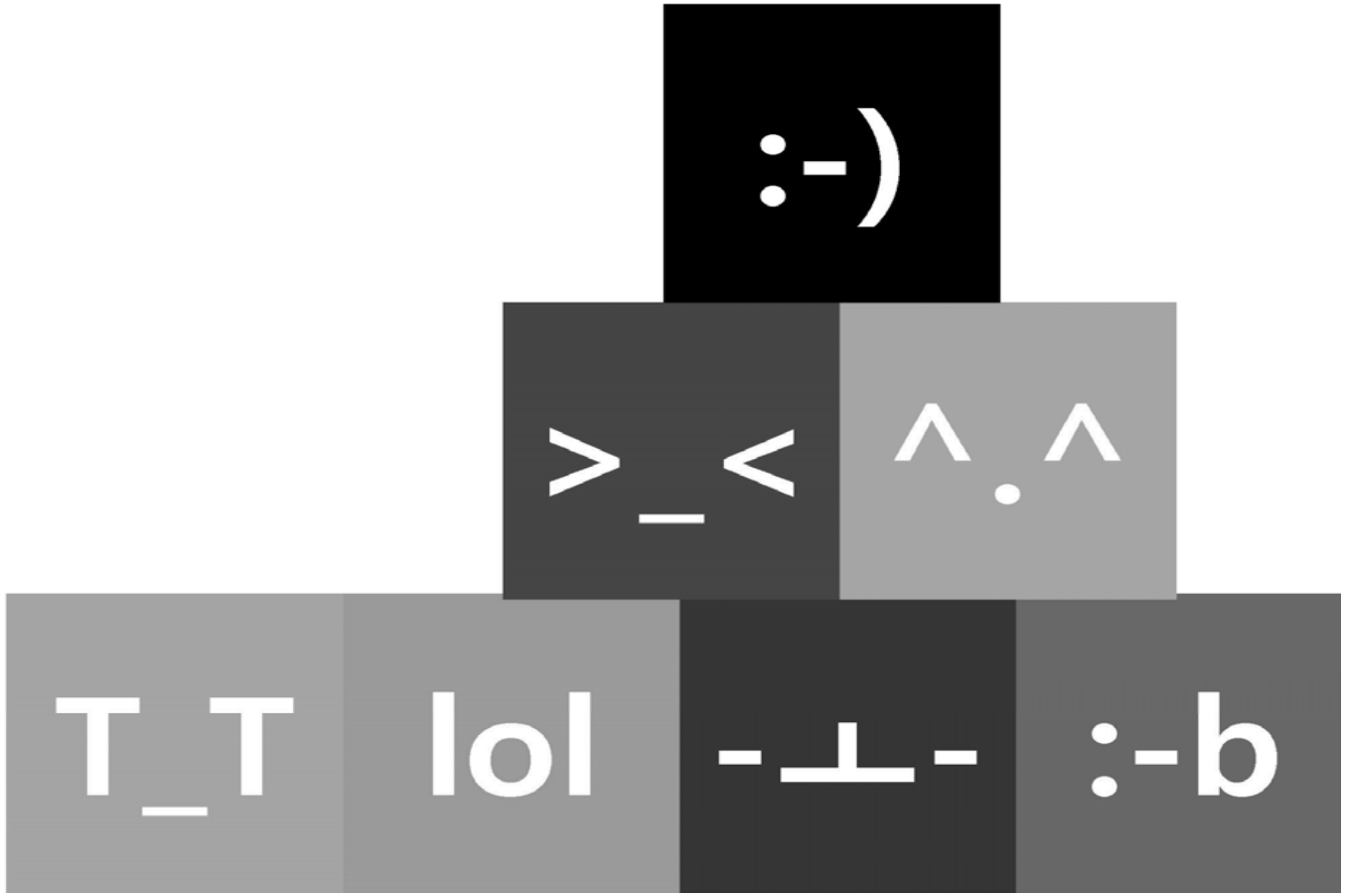
Different & Equal

한국사회에 다양성을 외치다!



Different & Equal

한국사회에 다양성을 외치다!



150만 명의 이주민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한국은
다문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래의 사진 중에서
한국인은 총 몇 명일까요?

.

.

.

여러분은 이제 외모로 국적을 판단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 이제부터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집 OOO씨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어디에서 왔어요?
다문화 엄마예요?
남편이 어느 나라
분이세요?
미국, 영국, 캐나다?
선진국에서 온
능력 없는 사람도
많죠~
남자가 분홍색
좋아하면 이상해요?
미얀마는 그런 거
없어요.
네 이름 너무 길어.
한국사람들이 웃어~
이름 바꿔!
한국말 잘하네요?
영어 잘하게
생겼는데..

1 한 지붕 다문화

2 궁극의 마이너리티가 되라

3 나는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4 나의 한국생활 일기

5 그래도 나는 한국인

6 Excuse me

7 ?

1

한 지붕 다문화 Iresha Perera

너희는 미안마야, 아니면 어느 나라야?

한국말 잘하네~

다문화 엄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도와줘야 해.

13년을 한국에서 산 나에게 변하지 않는 것, 사람들이 내게 던지는 질문들

10년이면 많은 것들이 변한다고 하는데 13년을 한국에서 산 나에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사람들이 내게 던지는 질문인데 얼마 전 일이다. 아이들과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말을 걸었다.

"너희는 미얀마야, 아니면 어느 나라야?", "한국말 잘하네" 우리들은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지낸 시간만큼 한국어를 잘하는 것도 당연한데,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어김없이 이런 말을 듣는다. 다른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일하며 아이들도 키우고, 가사노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 나를, 주변 사람들은 그저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며 걱정하곤 한다.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하러 간 자리도 아니고 그냥 평소처럼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을 뿐인데, 그런 나에게 아이들을 키우는 게 힘들지는 않은지, 생활하는 게 어렵지는 않은지 질문한다. 그럴 때면 늘 생각하게 된다.

'나는 정말 남들과 다른 사람일까?' 아니면 '부족한 사람일까?'라는 그런 생각

나는 다문화 엄마일까, 외국인일까?

낯선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호칭.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다문화 엄마'**이고, 혼자 있으면 **'외국인'**이다. 한국인으로 귀화해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주변인'**에 머무르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래서 나는 그저 내 방식대로 대답하곤 한다. "다문화 엄마예요?"라고 물으면 "아니요. 세현이 엄마예요"라고 대답하고, "외국인이에요?"라고 물으면 "아니요. 안양 사는 주민이에요"라고 대답한다. 처음에는 나의 답변을 듣고 재미있어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원하는 호칭으로 불리고 있다.

나의 딸, 세현이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금은 모두 '세현이 엄마', '이레샤'로 불러주고 있지만, 처음에는 아니었다. 어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세현이의 피부색이 왜 다른지 설명하면서 **"세현이는 다문화 가정이고, 세현이네 엄마는 다문화 엄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도와줘야 해"**라고 했다. 아마도 나와 세현이가 당당하지 못했다면, '나는 다른 사람인가?', '왜 나를 도와주려고만 하는 걸까?'라고 생각하기만 했을 거다. 그러나 나는 세현이네 학교 아이들과 만나기를 원했고, 담임 선생님에게 부탁을 해서 매 학기마다 학부모 수업을 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부산에서 안양으로 전학 오듯이

어떤 사람은 한국인과는 다른 외모, 한국인과는 다른 말투를 보며 외국인을 경계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산에서 안양으로 전학을 온 아이가 처음에는 낯설지만 점점 익숙해지는 것처럼, 이주민도 이와 비슷하다. 세현이네 반 아이들에게 이렇게 예를 들어가면서 다문화가정을 설명했더니 훨씬 잘 이해하는 것 같았다.

물론 우리 학교에도 아직 풀지 못한 숙제는 남아있다. 10년 넘게 한국에서 산 이주여성이 있는데, 학교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담당 선생님은 나에게 전화를 해서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하곤 한다. 한국어 발음이 나보다 좋진 않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한데, 왜 그녀에게 직접 전화를 하지 않는 걸까?

다문화 가정을 향한 변하지 않는 호칭이나 질문, 그들이 어렵고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하는 태도는 매우 낡은 방식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한국에서 살아가는 게 힘들죠?"라는 말 대신 "어떻게 지내요?"로 바꾸면** 함께 살아가는 이웃 간의 대화로 느낄 수 있을 텐데. **"한국인처럼 한국말 잘하네"**와 같은 말보다는 "열심히 살고 있네요"라는 말들로 바꿔주면 좋을 텐데.

그럼 서로 더 가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Iresha Perera(이레샤 페레레)

이주여성단체 톡투미(Talk to me)의 대표이자
KBS1 <러브 인 아시아>의 고정패널
PBC FM <양미경의 우리가 무지개처럼>에서
'이레샤의 한국생활 바로 이 맛이야' 의
출연진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2

궁극의 마이너리티가 되라 정주영

#. 1
남편이 외국인이라고 밝히는 순간
"어머, 그래요? 어느 나라 분이세요?
미국, 영국, 캐나다?"

"인도네시아요"

"....."

#. 2
남편에게 반말하는 사람들과 싸우다 보면
"남편인 줄 몰랐다. 미안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남편이 아니었으면,
계속 반말을 할 거라는 뜻인가?

"네가 만일 나와 다르다면 너는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서 영감을 얻고 그것을 나와 우리 사회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다문화 사회라고 생각한다. <어린 왕자>의 생 떽쥐베리가 한 말도 있지 않던가. **"네가 만일 나와 다르다면 너는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호기심과 분노

본래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10여 년 전 이주노동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을 보고 근방의 이주노동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를 만나 결혼하였고, 그 후 부당함에 대한 분노로 인해 이주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혈액형, 그리고 인정이 넘치는 문화

인도네시아에서 온 남편은 **혈액형으로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는 한국문화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서양의 별자리 점과 유사하기는 하지만, 한국인들은 혈액형과 성격의 관계를 지나치게 맹신하는 것 같다고 한다. 일상 생활에서는 물론이고 직장의 면접에서도 혈액형을 묻는 곳이 많아서 이상하다고 한다.
한국형 문화 중에서 좋은 것은 바로 더치페이이다. **이번에는 내가 사고 다음에는 네가 사는 문화가 정확한 더치페이보다는 인정이 있어 보여서 좋다**고 한다.

도서관과 대사관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남편으로부터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 문자가 왔다. "도서관"이라고 답을 하자, "Embassy? Why?(대사관? 왜?)"라는 답장이 왔다. 남편은 도서관과 대사관이 헷갈렸던 것이다.

"외국인하고 결혼할 거면 영어권 사람하고 결혼하지 그랬냐?"

"어머, 그래요? 어느 나라 분이세요? 미국? 영국? 캐나다?"
"인도네시아요"
"……"

남편이 외국인이라고 밝히는 순간 어김없이 돌아오는 질문과 답이다. 방긋하던 얼굴에는 난감함이 묻어있고 당황스러움으로 다물어진 입으로 대화는 중단된다. 더구나 내가 영문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사람들은 내 남편이 외국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영어권 백인이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사람들은 "부모님이 반대 안 했냐?", "기왕 외국인하고 결혼할 거면 영어권 사람하고 결혼하지 그랬나?"고 말한다. 하지만 그런 질문에는 이렇게 반문하곤 한다.

"전혀. 내가 35살에 결혼해서 그런지 아무 반대 없던데"
"그럼, 너는 기왕 한국인하고 결혼할 거 재벌 2세하고 하지 그랬냐?"

“어? 여자분이세요?”

한국사회에서 한국인 아내와 동남아시아인 남편으로 구성된 가족은 흔치 않다. 그래서 불편을 겪을 때도 있다. 한 번은 통장님이 집으로 다문화가정실태 조사차 전화를 했다.

"정주영씨 부탁합니다."
"예. 전데요."
"어? 여자분이세요?"
"예. 그런데요"
"제가 받은 서류에는 정주영씨가 한국남자고 부인이 외국인인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나의 요청으로 정정을 하긴 했지만 어이가 없었다. 물론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이겠지만 확인도 안 해 보고 무조건 그렇게 분류된다는 사실에 맥이 빠졌다.

"남편인 줄 몰랐다. 미안하다"

내 삶을 향해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이 든다. 또 남편에게 반말하는 사람들과 싸우다 보면 "남편인 줄 몰랐다.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남편이 아니었으면 계속 반말을 할 거라는 의미인가?**

한 번은 남편이 친구들과 식당에 갔다가 주인 아주머니가 계속 반말을 하기에 남편이 **"손님한테 왜 반말이세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뭐라고? 나가"라고 하면서 남편 일행을 쫓아냈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로 진정서를 접수했다. 그러자 주인이 남편에게 사과를 하긴 했지만 그 과정도 쉽지는 않았다. 결국 남편과 주인은 합의서를 작성했다.

한국 사회에 던지고 싶은 말 "너나 잘하세요"

사람들은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질적인 것, 자신과 조금이라도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용납을 못하는 것 같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으니 자기 삶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다.

당신을 가슴 깊이 기억할게요.

인도네시아의 전통 악수법을 하나 소개하고 싶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악수를 하고 나면 대부분 그 손을 자신의 왼쪽 가슴에 잠시 갖다 댄다. 왼쪽 가슴은 심장이 있는 자리인데, 이는 **'내가 당신을 가슴 깊이 기억하겠다'**라는 뜻이다.

나는 다문화 인권교육을 할 때 행복하다.

인권교육에 참석한 분들이 내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자신에게 와 닿는 말들을 필기하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수업을 마친 후 정말 잘 들었다고 인사를 하거나 감동적이었다고 할 때 행복하다.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다문화 인권교육과 미디어 모니터 활동을 계속하고 좀 더 공부해서 이주민과 그 가족들의 심리치료 활동도 더불어 하고 싶다.

정주영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활동했었고
경북대학교 영문학과 박사과정을 수료 하였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다문화 인권교육
강사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궁극의 마이너리티가 되라" 는 질 들뢰즈(Gilles Deleuze)의
말을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3

나는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Sodnom Sodbileg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느꼈던 한 가지

한국인들은 선진국에서 온 외국인들에게는
고개를 숙이고 후진국의 외국인들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선진국에서 왔다고 해서 무조건
능력이 있고 잘 사는 것은 아니죠.
반대로 후진국에서 왔다고 해도
능력이 없고 못 살기 때문에 한국에
온 건 아니라는 점!

누군가 나를 찾아주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으니까

몽골인은 한국인과 외모가 유사하다. 내가 봐도 한국인인지 몽골인인지 구분을 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많으니 말이다. 그래서인지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불편한 점은 거의 없었던 게 사실이다. 어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유학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이주민이 상처를 받아 힘들어 하는 모습도 많이 보았고, 때로는 관련 단체의 직원들이 외국인들을 이해해주며 친구처럼 챙겨주는 모습도 많이 보았다.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공부를 끝낼 무렵 이주민지원기관에서 상담원으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이 들어왔고,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상담업무를 시작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쉽지는 않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의미 있고 보람찬 날들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힘을 내기도 한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또 누군가가 나를 찾아주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으니까.

선진국에서 왔던 후진국에서 왔던
자신의 신분과 옷을 벗어 던진다면 똑같은 사람일 뿐

처음 한국에 입국했을 때 많이 느꼈던 부분 중 한 가지, 한국인들은 선진국의 외국인들에게는 고개를 숙이고 후진국의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선진국에서 왔다고 해서 무조건 능력이 있고 잘 사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후진국에서 왔다고 해도 능력이 없고 못 살기 때문에 한국에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외국인지원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외국인들을 만나왔는데, 그들 중에는 외교관도 있었고 노숙인도 있었다. 여러 상황에 처해있는 외국인들을 보면서 생각하게 된 한 가지,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과 옷을 벗어 던지면 선진국에서 왔던 후진국에서 왔던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고정관념과 편견을 갖지 않고 함께 사는 이웃주민으로 받아들인다면 차별이라는 말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밥 먹었어요? 다음에 같이 밥 먹어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처럼 한국에 왔으면 한국어와 문화를 익히며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 경험으로만 봐도 그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언어는 배우면 되고 문화는 익히면 되지만, 내게 익숙한 음식과 인간관계 등 다양한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다.

어색하고 이해하기 힘들었던 점 중 한 가지는 바로 한국의 인사 법이다. 한국은 누군가를 만나면 의례적으로 **"밥 먹었어요? 다음에 같이 밥 먹어요"라고 인사를 나눈다. 그러나 처음에는 함께 식사를 하자는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였다. 형식적인 인사말인 줄도 모르고...** 그러나 이젠 나도 모르게 한국인처럼 형식적인 인사를 하곤 한다. 습관적으로 "밥 먹었어요? 다음에 같이 밥 먹어요"라고 인사를 하는 내 모습을 보며 웃기도 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문화에 익숙해져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해하기 힘들었던 인사 법을 습관처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하루 세 끼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밥을 안 줘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상담 업무를 하고 있을 때다. 어느 날 몽골인 노동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한국에 오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고용주가 하루 세 끼를 제공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밥을 안 준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확인 차 고용주에게 전화를 했더니 **"매일 같이 세 끼를 꼬박 꼬박 주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라며 화를 냈다. 다시 몽골인 노동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밥과 김치, 나무로 만든 국물만 주는데, 그게 무슨 밥이냐"**라고 하는 것이다. 나는 한동안 말문이 멈출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고용주와 노동자의 입장을 모두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몽골인들의 주식은 고기이고,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음식은 거의 없다. 그런데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밥과 김치, 나물이나 반찬 등은 한국인의 주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게 바로 **문화차이**인가보다 싶었다. 서로의 문화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경험할 수 있었다.

Sodnom Sodbileg(서더)

서울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에서 활동하면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행정학과에 재학 중이다.

4

나의 한국생활 일기

Maung AungTin Htun

#. 1
한국은 남성이 분홍색을 좋아하면
이상하다고 하죠. 미얀마는 그런 거 없어요.
한국에서 활동하는 단체 활동가들도
남성용 색과 여성용 색을 구분하는 거 보고
신기했어요.

#. 2
퇴근하자마자 작업복을 입고
오디오 세트를 사러 갔어요.
오디오를 보여달라고 하니 보여주지도 않고
돈이 있느냐라고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곳에서는 사고 싶지 않아서
옆 집에서 오디오 세트 두 대를 구매했죠.
.
.
.
우리도 그런 사람이 파는 곳에서는
사고 싶지 않은 거죠.

한국사회와 이주민을 연결해주는 고리, 이주민 방송국

미얀마에서 지낼 때부터 영화나 연극, 오페라를 좋아했다. 한국에 온 후에 다양한 대중매체를 보면 이주민과 관련된 내용은 늘 부정적인 이야기 뿐이었다. 외국인 범죄, 이주노동자들의 사건사고들...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없었기 때문에 MWTV 이주민 방송국을 시작하게 되었다. 영화란 우리들의 삶을 소재로 만드는 것이고, 영화라면 한국 사회와 이주민 사회를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함께 하자'는 의지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좋다고 생각한 점도 참 많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화장실에 적혀 있던 "신사답게 자기 집처럼 깨끗하게 쓰자"라는 문구이다. 미얀마의 경우 군사독재정권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말 것"이라는 명령적인 말들을 많이 사용한다. 반면 한국은 친절하게, 그리고 함께 살아가자는 공동체 중심의 의지들이 강하니까. 그런 면이 참 좋다.

왜 남자가 분홍색 핸드폰을 사용해?

어릴 때 큰 누나가 분홍색 바지를 사준 적이 있다. 티셔츠도 분홍색이었다. 어릴 때부터 분홍색을 좋아했고, 반짝거리는 것도 좋아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남자가 분홍색을 좋아하면 이상하다고 해서 놀란 적이 있다.

한국에 와서 분홍색 핸드폰을 산 적이 있는데 한국 사람의 10명 중 9명 정도가 **"왜 남자가 분홍색 핸드폰을 사용하냐"**라고 했다. 남자들은 검정색을, 여자들은 분홍색이 어울린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인권 운동을 하는 활동가들도 나에게 똑같은 말을 했다. 그래서 한 마디 했다. 차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차별을 부추기는 말을 해서 되겠냐고.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 때부터 분홍색을 여성용이라고 제작하는 것도 아닌데, 남자도 예쁜 것을 좋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한국사회는 원래 이렇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었다.

미얀마는 이런 인식 자체가 없으니까.

"이과장~"

"야! 반말 하지마. 이과장님이라고 해야지!"

1994년, 17살의 아웅틴툰이 한국에 왔고, 그 때 당시 나는 회사의 막내였다. 내가 들어간 회사에서는 아무도 한국어를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한국어를 공부해야만 했다. 우리 회사의 부장님은 "이 과장"을 불러 일을 시켰고, 우리는 이 과장님의 이름이 "이과장"인줄로만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과장님에게 할 말이 있어서 그를 불렀다.

"이과장~"

그러자 과장님이 나에게 화를 버럭 내면서 "야! 반말 하지마. 이과장님이라고 해"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 때 나는 정말 당혹스러웠다. 그 분의 이름이 "이과장"인 줄로만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때는 존댓말과 반말이 있는 줄도 몰랐다. 반말은 하나의 절반, 그러니까 ½만 말하는 것이 반말인줄로 알았다. 회사에서는 우리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지 않았고, 실제로 노동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말은 반말과 욕 뿐이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우리에게 존댓말을 바란다.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는 발상이다. 나에게 존댓말을 바라지만, 그들은 나에게 존댓말을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외모, 그리고 나를 대하는 태도

오디오가 유행이던 시절, 친구들과 함께 오디오세트를 사러 가기로 했다. 퇴근을 하자마자 작업복을 입은 채 근처 지하상가로 갔는데, **작업복을 입고 있는 나와 내 친구들을 보더니 "돈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오디오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오디오는 보여주지도 않고 돈이 있느냐라고만 물어봤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그런 곳에서는 사고 싶지 않아서 바로 옆 집으로 갔다. 그리고 그 가게에서 오디오세트 두 대를 구매했다. 그 때 당시 오디오 세트 한 대당 40만원이었으니까, 아쉽기는 했을 거다. 하지만 우리도 그런 사람이 파는 곳에서는 사고 싶지 않다.

얼마 전 유엔(UN)의 초청을 받아 미국에 다녀 왔다. 사비로 숙소비용을 지불하고, 나중에 유엔에서 받기로 했다. 용무를 마치고 한국에 귀국하니 얼마 지나지 않아 ○○은행으로부터 문자와 전화가 왔다. 유엔에서 이체한 돈이 입금되었으니 찾아가라는 연락이었다. 몇 일 후 은행에 방문을 해보니 은행직원이 의아해하면서 왜 왔느냐 라고 하는 것이었다. 당황한 나머지 은행에서 보내 온 문자도 보여줬으나, 오지 않아도 되는데 왜 왔느냐 라고 하면서 불친절한 태도로 나를 대했다. 화가 나기는 했지만 이와 간 김에 카드가 불편해서 변경신청을 했다. 그런데 갑자기 **은행직원의 말투와 태도가 친절해졌다. 내 정보를 보고 태도가 변한 건가? 참나...**

빨리 빨리 일해도 맞는 세상

내가 직접 상담을 한 사례이다. 한국에 온지 6개월 밖에 안된 몽골 이주노동자가 있었다. 한국 사장이 빨리 빨리 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입사한지 얼마 안 되어 일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 노동자가 이주노동자의 빠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자 한 마디 했다고 한다. "야. 천천히 해라."**

몽골에서 온 노동자는 동료 노동자가 천천히 하라고 해도 사장이 빨리 하라고 하니 빨리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러자 한국인 노동자가 화가 난 나머지 쇠톱으로 몽골 이주노동자의 목을 치고 말았다. 쇠톱이 부러진 채로 머리를 때려 머리에 피가 났는데, 회사에서는 아프면 그냥 쉬라고 했다는 것이다. 같이 일하던 미얀마 친구가 나에게 전화를 했길래 바로 병원에 가보라고 했고, 나도 그 병원에 가서 몽골 이주노동자를 만났다.

진단 결과가 나왔지만 회사 측에서는 한국인 노동자를 처벌하지도 않았고, 몽골 이주노동에게 보상금을 주지도 않았다. 그냥 몽골 이주노동자가 직장을 이동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이주민이 한국인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하기라도 하면, 외국인 범죄가 매우 심각하다는 듯이 보도되곤 한다. 그러나 한국인이 이주민을 때리는 사건은 언론에서 본 적이 없다. **만약 내가 이주노동자들을 상담하지 않았다면, 나도 잘 몰랐을거다.**

팔짱 낀 모습이 건방져 보이나? 미얀마는 그 반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과장님과 대화를 하며 벌어진 일이다. 나는 팔짱을 낀 채로 과장님과 대화를 나눴다. 그런데 갑자기 내 팔을 치며 내리는 것이었다. 나는 순간 내 팔에 뭐가 묻은 줄 알고, 다시 팔짱을 꼈다. 그러자 다시 내 팔을 치며 내리라고 하는 것이다. 다시 팔짱을 끼려다가 분위기가 이상해서 가만히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됐다. 한국어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왜 그러는지 물어볼 수도 없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인들은 영어를 잘 사용하지 않아 영어로 물어볼 수도 없었으니까.

시간이 지난 후, 미얀마에서 한국어교사로 활동했던 분을 만나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눴다. 처음 미얀마에 갔을 때, 모든 학생들이 팔짱을 낀 채로 인사를 해서 당황했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한국의 고용주들이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을 괴롭힌다는 소문을 듣고 한국 사람인 자신에게 반항을 하는 줄 알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왜 팔짱을 낀 채로 인사를 하는지 물어보지도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나와 대화를 나누면서 **팔짱을 끼고 인사하는 게 미얀마식 존경의 표현**인 것을 3년 만에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팔짱을 낀 채로 윗사람과 대화를 하는 게 예의가 아니라는 것을 10년 만에 알게 되었다. 한국에 오래 살았어도 알 기회가 없으면 모르게 되나 보다. 아마 이 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영원히 몰랐을지도 모른다.

Maung AungTin Htun(아웅틴툰)

MWTV 이주민방송국 대표로 활동했었고,
2012 이주인권영화제를 기획 및 진행을 했다.
문화교육과 인권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다.

5

그래도 나는 한국인

Ronel Chakma Nani

야. 차크마 나니야.
이름을 바꾸는 게 어때?

왜?

네 이름은 너무 길어.
게다가 이름이 이상하면 한국사람들이 웃어

이름만 한국식 이름이면,
한국 사람들이 무시 못하거든~

... 그래도 난 이제 한국 사람이야.

줌머(JUMMA) 소수민족을 위한 인권보호 활동을 시작으로

1985년 내가 고등학생이던 시절, 줌머 소수민족의 인권보호활동을 하다 방글라데시 군대에 의해 체포되었다. 3년 동안 재판을 받고 석방된 뒤에 또 다시 인권활동을 하였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한국으로 망명하였다. 지난 10여 년 동안 방글라데시 "줌머족" 소수 선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한국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활동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한국사회의 변화를 전면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나 역시도 단체 활동가를 꿈꾸었다.
2012년 한국인 신분으로서 유엔(UN)의 선주민 정기포럼에 참석하여 방글라데시 소수 선주민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고, 현재는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좋다고 생각했던 점들은 참 많다. 그 중에서도 자신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존경하고 양보하는 문화가 참 좋다. 전보다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교육이 잘 이뤄지고 한 가족 한 가족이 평화롭기 때문에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평화롭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로 인해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본다.

"야, 차크마 나니야. 이름을 바꾸는 게 어때?"

나처럼 한국인으로 귀화한 외국인들을 만났다. 대부분 김 씨, 이 씨 등 한국의 성과 이름을 갖고 있었다. 심지어는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으로 귀화한 뒤 성이 달라진 이주민들도 보았다. 형은 김 씨, 동생은 장 씨... 나중에 알게 됐지만 한국에 살면서 각자가 좋아했던 사람의 성을 선택한 것이었다. 다른 이유가 더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본다. 그러나 이 형제는 한국인으로 귀화를 하는 동시에 자신의 성과 가족의 인연을 끊은 셈이기도 하다. 귀화를 하면서 성과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한국식 이름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분위기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국적을 취득하고 나서의 일이다. 어느 날 내가 좋아하는 한국인 친구를 만났다.

"야, 차크마 나니야. 이름을 바꾸는 게 어때?"

"왜?"

"네 이름은 너무 길어. 게다가 이름이 이상하면 한국 사람들이 웃어. 인정 받기도 힘들 거고. 이름만 한국식 이름이면 한국 사람들이 무시 못해~"

"그래도 난 이제 한국 사람이야"라고 하며 말을 끊었다.

물론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이 한국어나 문화를 배우지 않으면 적응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이주민들의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한 채 한국인처럼 살아간다면 어떨까? 다양성 없는 다문화사회가 되는 것은 아닐지?

외국인은 나이도 없나?

어느 날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김포로 가는 길이었다. 한두 정류장 정도 지나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버스를 탔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자 버스 기사도 "어서 오세요"라고 답했다. 몇 정류장 정도 지난 후, **50대로 보이는 외국인이 큰 짐을 보따리를 들고 버스에 탔다. 그러자 버스 기사가 "어디 가? 왜 이렇게 큰 보따리를 가지고 다녀?"**라고 물었다. 그 외국인은 한국어를 몰라서인지 답을 안 했고,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어디서 내려, 언제 내려 등 버스 기사의 질문을 들어야만 했다.

그 외국인이 내린 후, 이번에는 또 다른 30대 외국인이 버스에 올라탔다. 한국어가 익숙한지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며 탔고, 버스 기사는 "그래. 어서 와" 또 다시 반말로 대답했다. 그 버스 기사는 "어디 가?"라고 또 다시 질문을 했다. 그러자 그 외국인에게 바로 전화가 걸려왔고, 그는 전라도 방언을 사용하며 능숙한 한국어로 통화를 했다. 통화가 끝난 후 내릴 때까지 그 버스 기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운전만 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들이 내릴 때 마다 일일이 인사를 했지만 그 외국인이 내릴 때는 인사를 하지 않았다.

25살 먹은 아가

어느 날 지인과 함께 업무 차 장애인 시설에 방문한 적이 있다. 얼굴에 장애가 있는 분이 우리를 돕는다고 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함께 간 지인이 "아가야"라는 호칭으로 그를 부르는 것이었다. 그가 화가 났는지 "제가 올해 25살인데 왜 계속 '아가'라고 부르시나요?"라고 항의를 하였다. **50대의 외국인도, 20대의 장애인도, 그들이 보기에는 어리게 취급해도 되는 존재**인가보다.

유난히 더웠던 여름, 평소 알고 지내던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몸이 아파서 출근을 하지 못해 기숙사에서 쉬고 있었다. 그런데 회사 관계자들이 의도적으로 기숙사의 전기를 차단하였고, 그 이주노동자는 나에게 찾아왔다. 회사에 항의 전화를 했고, 베트남 이주노동자와 함께 고용지원센터에서 가서 상담을 받았다. 그러나 센터 측에서는 그러한 고충은 인권문제이지만 노동부에서는 해결을 할 권한이 없다라고 답변하였다.

한국사회는 변할 것이고 변화되고 있다. 문화와 사람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한국, 차별과 억압 없이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국을 만들어 가고 싶다.

Ronel Chakma Nani(로넬 차크마 나니)

재한줌머인연대(JPNK)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했었고,
현재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다.

6

Excuse me 정사라

"Excuse me."

"네?"

"어? 한국말 하시네요? 제가 요즘 영어를 배우고 있어서 한 번 연습해보려고 말 걸었거든요."

"죄송해요. 전 영어 못해요."

"아, 그래요? 영어 되게 잘 하게 생기셨는데..."

다문화로 사람을 구분하는 것

다문화... 다양한 문화란 문화일 뿐이지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말을 만들어서 내 친구들에게 사용하는 것 자체도 어울리지 않는다. 다문화라는 말을 가정 뒤에 붙여서 '다문화가정'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다문화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자 어릴 때 다녔던 코시안학교도 다문화학교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적이 있고, 내 친구들이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타이틀을 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내 친구들은 이러한 말들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나누는 것뿐이다. "쟤네 다문화가정이래" 뭐 이런 식으로. 우리끼리 있으면 이런 말도 사용하지 않는다. 신경 쓸 일이 없기 때문이다.

모델이라는 직업은 다문화가정이라는 단어로 나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택했다. 다른 모델들보다는 키가 작아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장윤주 씨를 보고, 키가 작은 나도 모델을 할 수 있겠거니 생각했다. 그러자 엄마가 흑인 모델 나오미 캠벨에 대해 이야기 해주었다. 흑인 모델이 있는지조차도 몰랐던 나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우리 가족은 모두 한국인인데...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만 자랐다. 아버지의 고향인 파키스탄도 두 번 정도 다녀왔을 뿐이다. 하지만 한국 문화 중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긴 하다. 바로 한국을 선진국이라고는 하지만 그 속내는 후진국이라는 점이다. 약간 겉멋 든 선진국에 마인드는 후진국?

아버지와 동생과 같이 길을 지나다 보면 "외국인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지금은 나이가 좀 들었으니(?) 가족과 같이 다닐 일이 별로 없기는 하다. 하지만 예전에 서울에 갔을 때 실망감을 느낀 적이 있다. 서울 사람들은 이해심도 많고 똑똑한 줄 알았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더라. 가족과 함께 길을 걷다 보면 우리를 보고 외국인이라고 한다. 외국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안다는 것인지... 나와 동생은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만 생활했다.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이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이젠 귀화를 하셨으니 한국인이다.

우리 가족은 모두 한국인인데 어디가 외국인 이라는 건지.
겉모습만 보고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니까.

정말이요? 영어 할 수 있어요? 그럼 파키스탄어 잘해요?

아버지가 외국인이었다고 하면 "그럼 영어 잘하겠네?" 또는 "아버지 나라 말을 잘하겠네?"라고 할 때 불편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게 물어보는 순서가 있다.

"저 파키스탄계 한국인이에요."
"정말이요? 그럼 영어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영어 못해요."
"그럼 파키스탄어 잘해요?"
"아니요. 못하는데요."

굳이 영어를 잘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이상한 질문이기는 한데, 그냥 늘 상 붙어 다니는 질문이기는 하다.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영어를 못한다고 하면 왜 못하냐고 물어본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가 외국인이라고 말하면 "영어를 해봐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일부러 영어 학원을 다니지 않았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영어를 못해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영어공부 좀 해놓은 걸, 후회는 된다.
아버지가 파키스탄분이라고 하면 파키스탄어도 해보라고 시킨다. 그래서 이제는 파키스탄어를 전혀 할 줄 모른다고 해버린다. 사실 아버지도 집에서는 파키스탄어를 사용하지 않으시니까..

Excuse me.

전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 낯선 남자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Excuse me."
"네?"
"어? 한국말 하시네요? 제가 요즘 영어를 배우고 있어서 한 번 연습해보려고 말 걸었거든요"
"죄송해요. 전 영어 못해요."
"아, 그래요? 영어 되게 잘 하게 생기셨는데..."

속으로 생각했다. 대체 영어 잘 하게 생긴 건 뭐지?라고. 너무나도 민망해서 바로 옆 칸으로 옮겼다.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경험한 일인데,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황당하고 웃기는 일이다.

Hi. 외국인!

어느 날, 학교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올라가는 길이었다. 실용음악과 남자 선배가 나에게 인사를 했다.

"Hi. 외국인" 그러더니 그 옆에 있던 선배의 친구가 한 마디 했다.
"야. 네가 더 외국인처럼 생겼어."
"뭐? 내가 어디를 봐서 외국인처럼 생겼냐?"

자신이 어디를 봐서 외국인처럼 생겼냐고 윽박을 지르면서 서로 싸우더라.
나는 그냥 지나가기만 했을 뿐인데, 둘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황당한 적이 있다.
사실 나에게 외국인이라고 하던 말던 별로 개의치 않는다.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만 자란 한국인이기는 하지만.

그냥 대놓고 물어보지.

한국사회에 하고 싶은 말이 있기는 한다. 한 번씩 생각하고 말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걸러낸 후에 말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상대방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잦으니 말이다. 어쩔 때는 이런 것도 기분이 나쁘다.

"저기, 네가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해서....."

가끔씩 나에게 저런 질문들을 한다. 기분이 나쁠 거라고 생각했으면 말을 하질 말던가, 궁금하면 다른 곳에서 찾아보면 될 것을 왜 굳이 물어보는 건지 모르겠다. 한 번은 어떤 친구가 나에게 "외국계 한국인이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다. 그냥 물어보면 될 것을, 상처 받을 까봐 말 안 하려고 했다 등 이런 저런 이유들을 장황하게 말하며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 사실 그런 말들이 오히려 나를 더 불쾌하게 만든다. 내가 상처를 받을 까봐 위해주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하다면서 물어보니까. 차라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물어보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든다.

파키스탄계 한국인 모델로 사는 것

야스민 가우리. 우리 학교 모델이론 수업시간에 알게 된 모델이다. 캐나다 출신의 파키스탄계 독일인 모델이 있다. 아버지가 파키스탄인이고 어머니가 독일인인데, 이 모델의 이미지가 나와 비슷하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셨다. 야스민 가우리가 나보다 더 이목구비가 뚜렷한 것 같기는 한데, 피부색이 약간 까만 것과 팔다리가 긴 것이 나와 비슷하다고 한다. 사실 별로 유명하지는 않은 모델이다. 헌데, 수업시간에 선생님께서 아버지가 파키스탄인이고 어머니가 외국인인 모델이 있다고 하면서 소개해주셨다. 생각해 보니 나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일부러 소개해주셨던 것 같다. 그래서 감사하기도 했고, 용기도 났다.

나에게 꿈이 있다면, 야스민 가우리보다 더 유명해지는 것이다. 길을 지나다가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모델이 되고 싶다. 그래서 내 뒤를 이을 후배 모델들이나 외국계 한국인들로 태어날 아이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하고 싶다. 사실 아직까지 모델계에서는 인권이라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말이다. 유명한 모델도 되고, 인권 운동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사회캠페인이나 인권 운동을 하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멋진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사라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다.
LACOSTE 온라인 모델, 잡지 보그걸 등
모델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7

당신은 한국인입니까?

당신은 한국인입니까?

이레샤씨는 스리랑카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인으로 귀화를 하였고,
정주영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인으로 살면서 인도네시아인과 결혼을 하였고,
서더씨는 몽골에서 태어나 몽골인으로서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일을 하고,
아웅틴툰씨는 미얀마에서 태어나 난민 인정을 받아 한국에서 살고 있고,
로넬씨는 방글라데시에서 살다가 한국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후 한국인으로 귀화를 하였고,
정사라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파키스탄에서 온 아버지, 한국인 어머니와 한국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 준 6명 중 '한국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이레샤씨, 정주영씨, 로넬씨, 정사라씨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한국인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한국인은 누구인가요?

이주민 인권 사례집

발행일	2013년 12월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인	현병철
주소	100-842 서울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
전화	02-2125-9858~64 / 국번 없이 1331
팩스	02-2125-0917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
인권교육센터	edu.humanrights.go.kr
이메일	edu@humanrights.go.kr
제작	케이엘퍼니쉬 (Tel. 070-8654-4215)

ISBN 11-1620000-000500-01